

수출 '기지가'... 제조업 '훈풍'

광주상공회의소 제조업 경기전망



삼성 무풍 에어컨



기아차 '쏘울'

수출 회복세를 등에 업은 광주 지역 제조업자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지수도 좋아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경기전망지수 111
전분기보다 45P 상승
광주삼성·동부대우 회복세
자동차 실적개선 기대감



동부대우 냉장고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지역 12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지수(BIS)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 보다 45포인트 상승한 '1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2분기 '116'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치다.

BIS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기준치 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 2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분기 10.7%(13개사)보다 늘어난 33.3%(42개사)로 나타났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22.2%(28개사)로 전분기 44.6%(54개사)보다 감소했고, 기타 44.4%(56개사)는 경기상황이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지역 주력업종의 수출 회복세와 상품성 개선 모델 양산에 따른 수출내수 수요의 증가 전망과 비수기 실적 부진으로 위축됐던 체감경기가 성수기 진입으로 반등하는 기저효과(Base Effect)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비롯해 동부대우전자 등의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졌고,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분야에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자동차 역시 상품성 개선 모델 양산에 따라 전분기 부진을 딛고 실적 향상을 기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22(전분기 78), 수출기업 123(전분기 71)으로 1분기 보다 크게 호전됐다. 중소기업은 109(전분기 64), 수출기업은 123(전분기 73), 내수기업은 107(전분기 64)로 각각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회복 중인 전기·전자(126)를 비롯해 자동차(108), 국내외 설비투자 부품 수요와 관련된 기계(111), 고무·플라스틱(113), 음식료(129) 등 대다수 업종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들은 2분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정치 불확실성(68.3%)'과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54.0%)'를 꼽았고, 대외 요인으로는 '트럼프 리스크(64.3%)'와 '중국 한한령과 경기둔화(62.7%)'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다각화(41.2%)', '혁신기술 개발(35.3%)', '해외 신시장 개척(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33.32 (-18.41)
-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4)
- ↓ 코스닥 619.41 (-13.91)
- ↑ 환율 (USD) 1142.20원 (+7.70)

고금리 대출로 배불린 카드사

7개사 카드론 등 지난해 4조3840억 수익...수익률 167%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가 조달비용보다 카드 대출 수익이 2.67배 많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에 싸게 돈을 빌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비싸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1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차입금 이자와 사채 이자로 1조6410억1700만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4조3840억59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달비용 대비 카드 대출 수익률은 167.1%로 지난해(132.2%)보다 34.9%포인트 올라갔다. 카드대출 수익률은 2011년만해도 50.1%였지만 2014년 100%를 넘기는 등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카드사 별로 살펴보면 수익률은 우리카드가 205.0%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가 201.3%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카드(178.0%)와 삼성카드(153.9%) 순이었다.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수익률이 62.0%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신한카드가 58.6%포인트로 두 번째였다.

롯데카드는 146.7%로 5.7%포인트 감소해 유일하게 수익률이 하락했다.

이처럼 대출 마진율이 올라간 것은 저금리로 조달비용은 줄었지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 수익은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평균 조달금리는 1.61%로 2015년(1.94%)보다 0.3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5%로 전년(14.58%) 대비 0.2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비율로 계산하면 조달금리가 17% 떨어질 때 카드론 대출 금리는 고작 1.6% 낮춘 것이다. 이 덕분에 지난해 이들 카드사의 이자비용은 2015년(1조769억7300만원)보다 1286억200만원 줄었지만 카드 대출 수익은 2740억2600만원 늘었다. /연합뉴스

전력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찾아요

한전 내달 19일까지 공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달 19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분야는 ▲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빅데이터 기반 고객맞춤형 서비스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및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제안이다.

공모 참여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지사·검침 협력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상자는 한전 자체심사를 거쳐 6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4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1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공모(2014년 최초 시행)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은 전력서비스 개선 및 전기공급약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유해 박테리아 박멸 램프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라페르 매장에 유리 공예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래그런스 램프가 선보였다. 이 램프는 열에나지를 이용하는 연소방식으로 공기 중의 악취물질과 각종 유해 박테리아를 함께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효성-포스텍 타이어 보강제 공동연구

효성은 10일 포항공대에서 '산학일체 연구센터' 출범식 및 공동연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포스텍과 자동차 타이어용 보강제인 '스틸코드(steel cord)'의 기초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포스텍이 이룬 실적을 전담하고, 효성은 제조설비로 이론들을 검증하게 된다. /연합뉴스

스틸코드는 효성의 주요 제품 중 하나다. 효성은 2011년 일본의 타이어 업체인 굿이어와 단일공급계약을 맺어 업계 최대 규모의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며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장(사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이병주 산학일체 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창조경제센터 창업기업 성과보고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는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오동동 센터 내 크리에이티브존에서 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 27기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알리는 '2017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벤처창업활성화지원·서민생활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선배 창업기업이 졸업 후에도 성과를 내는 만큼 올해 선정된 3기 창업기업도 대표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기업에 발굴 육성했다. 이 가운데 자이언트드론 등 20개사가 매출 116억원, 투자유치 103억원, 중소기업청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30억원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에 졸업하는 2기 보육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선배 창업기업이 졸업 후에도 성과를 내는 만큼 올해 선정된 3기 창업기업도 대표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